

1980년대 한국영화의 성적 욕망 담론에 관한 연구

—「애마부인」, 「뽕」, 「감자」를 중심으로—

김금녀

(성균관대·신문방송학)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영화는 ‘영화예술의 향상’이라는 영화시책의 선포로 검열이 완화되었고, 그 결과 모순된 현실을 소재로 비판의식을 강조하는 영화가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한다. 또한 1985년에 개정된 영화법에 의해, 영화사의 설립이 누구에게나 가능해졌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국내에서의 영화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외화수입의 자유화로 국산 영화 제작보다 외화수입 편수가 배를 넘는 역조현상을 초래했으며, 더구나 외국인의 영화사 설립허용으로 인한 UIP의 직배는 한국영화 1980년 사상 가장 어려운 가변적인 시기로 접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의 폐쇄적인 작품제작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식을 내세우는 진지한 리얼리즘 계열들의 작품¹⁾들이 대거 등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유신정권 이래 5공화국과 6공화국을 거치면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事案)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무디게 하고 호도하는 일환으로 추진된

1) 유현목의 「사람의 아들」(1980), 임권택의 「만다라」(1981), 「안개마을」(1982), 김호선의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1981), 정진우의 「백구야 훨훨 날지마라」(1982), 이장호의 「바람불어 좋은 날」(1980), 「어둠의 자식들」(1981), 이원세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 배창호의 「꼬방동네 사람들」(1982), 「깊고 푸른밤」(1984) 등이 있다. 김수남, 『한국영화의 쟁점과 사유』, 문예마당, 1997, 168쪽.

3S(Sex, Sports, Screen) 정책은 에로티시즘을 표방한 섹스영화의 양산을 가속화시키는 외부적 요인이 되었다.²⁾ 그 결과, 70년대 여성 주인공들의 몸과 섹스가 사회적 구조의 모순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 80년대 에로물들은 여성 주인공들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적 욕욕의 분출을 병리학적으로 왜곡되게 재현한다. 한국영화 감독들이 열심히 개척해 온 주제는 “성적으로 포로가 된 여인”을 다룬 것이다. 그들은 여성의 성적 욕망이 얼마나 손쉽게 처녀성의 유린 및 여성의 복종에 대한 취향과 결합됐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영화는 본능적인 욕욕의 여인, 도구적 섹스를 즐기고 탐닉당하는 여인, 강간당하는 여인들을 이용해 대중을 유혹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 이래 성적 주체의 자유와 해방이 매춘 산업의 일종인 호스피스 영화로 성의 상품화를 결과했듯이, 5공(共)시절 비문화적 검열상황에서 「애마부인」류의 청의 물신화가 영화담론의 주대상이 된다. 한국 영화는 관능의 노예가 된 여성 주인공들이 영화 스크린을 장악하게 되고, 욕욕과 섹스를 제공함으로써, 에로물과 사극 에로티시즘이라는 장르를 형성한다.³⁾

이러한 에로물들은 주로 혼외관계를 주제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혼외관계는 아내의 유희적 욕욕과 생계형 매춘 등을 담론의 대상으로 해서 문제삼기도 한다. 그러한 담론 대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70년대 「겨울여자」에서 비롯된 서구적 성모럴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애마부인」(정인엽, 1982년⁴⁾)처럼, 아내의 본능적인 욕욕과 그로 인한 혼외관계를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을 드러낸다. 둘째, 70년대 「영자의 전성시

2) 조해정, 「영화에서의 에로티시즘의 수용과 한계」, 『제17 예술평론 심포지움』, 1996, p.42.

3) 예를 들어 정인엽의 「애마부인」(1982) 시리즈와 성적 해학과 전통적인 소재의 발굴로 묘사한 임권택의 「씨받이」(1985), 이두용의 「뽕」(1986) 과 엄중선의 「변강쇠」(1986), 변장호의 「감자」(1989) 등이 있다. 「변강쇠」 1986년도 서울 개봉관, 한국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공사, 1982, p.116.

4) 애마부인, 1982년도 서울개봉관 한국영화 흥행 톱 10, 『한국영화연감』, 서울:영화진흥공사, 1982, p.122.

대, 「별들의 고향」과 같은 성의 상품화를 이어받은 「뽕」(이두용, 1985년)⁵⁾, 「감자」(변장호, 1987년)⁶⁾ 등과 같은 문예 영화는 유부녀의 매춘과 혼외관계를 통해 도구적 섹스와 유희적 쾌락이라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영화들은 에로틱한 자극을 원하는 대중들의 비밀스런 욕망과 비도덕성으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주제를 역사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영화들이 여성의 성적 욕망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위의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각각 유형의 담론분석에서 성적 욕망이란 감독의 창조성이나 단순히 현실을 반영한다는 관점보다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식담론들과 결합되어 구성된다는 관점을 견지할 것이다.

2. 담론분석 방법과 분석틀

1) 담론분석 방법의 의미

영화에 나타난 성적 욕망에 관한 담론과 사회의 지식-권력들과의 관계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연구방법으로는 고고학적 방법과 계보학적 방법이 있다. 즉 푸코(M. Foucault)가 제시하고 있는 고고학적 방법은 특정담론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것이고, 계보학적 방법은 그 담론의 구성체와 사회의 다양한 지식-권력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푸코의 주장처럼, 고고학은 담론의 기원들에 대한 탐구가 아니며, 담론 그 자체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관념의 역사도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

5) 뽕, 1986년도 서울 개봉관 한국영화 흥행 톱 10,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공사, 1986, p.116.

6) 감자, 심의: 연소자 불가, 입장인원 64,831명.(서울 개봉관 기준)

다. 그래서 고고학은 이미 당연시되거나 증명된 담론을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선협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담론을 회의하고 문제시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고고학적 담론분석 방법론은 특정한 담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담론들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된다.

먼저, 담론분석을 위해서는 담론의 규칙(rule)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푸코는 담론이란 제아무리 복합적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진술체계'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진술체계'란 특정담론에 대해 산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진술들이며, 그것들이 규칙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담론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성적 욕망이라는 담론은 의학교육법 담론의 대상으로서 진술된 것과 영화담론의 담론의 대상으로서 진술된 것들이 규칙적으로 연관되어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진술들을 서로 연관시켜 성적 욕망에 관한 담론을 분석한다는 것은 인간의 성적 욕망이 마치 인간의 육체 안에 내재적으로 각인된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고고학적 담론분석 방법은 인간의 성적 욕망을 인간의 심연의 본능적인 것에서 그 기원을 찾거나, 그리고 인간의 성적 욕망이 통제되고 억압되는 것이 자본주의 구조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있다는 기원을 찾는 데 초점을 두는 정신분석학이나 초기 페미니즘적 담론분석 방법들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 왜냐하면 고고학적 담론분석 방법은 성적 욕망에 대한 담론의 기원들을 캐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성적 욕망에 관한 담론은 그것을 둘러싸고 특정한 시기의 독특한 상호관계들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시기에 영화에서 인간의 성적 욕망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그 시기의 다양한 담론의 진술체계들의 대상과 관련 속에서 문제시하는 것이 된다.

둘째, 고고학적 담론분석 방법은 담론을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통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이고, 특정시기마다 담론들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푸코에게 있어서 역사란 어떤 기원적인 주체도, 본질도, 종말(목적)도 없는 불연속적인 사건들의 과정으로서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역사에서 출현하는 담론에 대한 분석은 상이한 효과를 산출하는 것을 상이한 차원에서 구별하고, 각각의 담론이 취하는 의미망을 식별하여 각 담론들간의 관계를 그것의 실증성(positivity)⁸⁾에 입각해서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성적 욕망에 관한 예를 들면, 여성의 욕욕이란 어느 시기에는 남성에게 의해 자극되어지는 대상으로 나타나지만, 어느 시기에는 여성 자체가 본능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욕체 안의 강렬한 움직임으로 담론화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의 욕욕에 관한 담론들은 즉 의학교육법 담론 등과 같은 그것을 둘러싼 담론들간의 상호모순된 대립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된다. 이렇게 볼 때, 고고학적 담론 분석방법은 담론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찾고자 하는 관점들과는 달리, 담론의 구성에 대한 불연속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차이를 미시적으로 세세히 문제삼는 것이 된다. 기존의 담론분석 방법과 고고학적 담론분석 방법간의 차이는 특정한 담론의 구성이 단순히 현실을 반영한다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며 텍스트 자체의 기호들간의 관계들로 설명될 수 있는 언어학적인 구성이 아니라는 점이다.⁹⁾

셋째,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특정의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실천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푸코의 담론이론은 담론이 순수히 언어내적인 것도 언어외적인 것도 아닌 의미생산체계로 보아 담론적인 것과 비담론적인 것(교육, 법제도, 감옥 등등)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산출되는 효과를 사고할 수 있게 한다.

요약하자면 고고학은 기존의 역사분석이나 담론분석들이 행한 보편적인 담론과 해석적인 담론 모두를 비판하고, 담론의 사회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담론의 규칙성, 담론의 불연속성, 담론의 물질성들을 밝힘으로써 담론의 전략적인

7) 푸코의 명목론과 역사파악에 대해서는 Rajchman, J., *Michel Foucault—The Freedom of Philosoph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5, 심세광(역), 『미셸푸코: 철학의 자유』, 간사량, 1992, 2장 참조.

8) Foucault, M., *L'Archéologie du Savoir*, Gallimard, 1969, 이정우(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1992, pp.17-43.

9) Deleuze, G., *Foucault*, (Minuit, 1986), 권영숙조영근 역, 『들뢰즈의 푸코』, 서울: 새길, 1995.

실천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후기 저작인 『감시와 처벌』에서부터, 푸코는 근대사회에서 권력-지식-육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밝히는 계보학의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계보학은 특정한 담론이 그 사회 내에서 제도와 연결되면서 하나의 지식으로 권력화되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계보학의 목표는 기존질서를 거부하고 억압당한 지식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계보학은 사건이나 역사의 전개 속에서 개념과 초월적인 주체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과 담론과 그 대상의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해내는 역사서술의 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성적 욕망과 남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지식이 구축되는데 있어서 어떠한 지식-권력이 동원되어 역사적으로 불균등하게 구성되었는가를 분석할 경우, 그 사회의 다양한 지식-권력과의 동맹관계를 미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여성의 성적 욕망이 어떠한 지식-권력과 맞물려 어떻게 담론으로 구성되는가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푸코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담론이 진리로서 간주되는 절차와 규칙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출현하고 그 속에서 발휘되는 권력의 효과는 무엇인가를 문제삼는다. 따라서 푸코는 담론의 생산과정에서의 담론을 통제하거나 재분배하는 절차 또는 방식들과 권력과의 관계를 연구대상으로 끌어들인다.¹⁰⁾

이상의 의미에서, 푸코의 담론이론은 상징체계나 의미행위의 구조영역에 안주하는 분석을 거부하고 담론을 둘러싼 세력관계 및 전략적 실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푸코 자신이 주장하고 있듯이, 푸코의 담론이론은 언어나 기호라는 진부한 모델이 아니고 전투와 전쟁같은 역동적인 모델¹¹⁾이라 할 수 있으며, 담론분석이 단순히 의미의 관계분석이 아니라 권력관계의 분석임을 알 수 있다.

10) Foucault, M., 「권력, 왕의 머리베기와 훈육」, *Power / 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Gordon, C.(trans.), 홍성민(역), 『권력과 지식』, 나남, 1991, p.116.

11) Foucault, M., 「진실과 권력」, *Power / 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Gordon, C.(trans.), 홍성민(역), 앞의 책, p.147.

2) 성적 욕망 담론에 관한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을 얻어내기 위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첫째, 영화가 어떠한 성적 욕망을 담론의 대상으로 삼았고, 둘째, 성적 욕망의 주체들을 어떻게 구성했으며 셋째, 성적 욕망에 관한 담론들을 어떻게 특징지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통해 영화가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기술할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담론분석 방법에 대한 기본전제를 중심으로, 푸코는 담론의 구성체계에 관한 기본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담론의 구성체계들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우선 담론의 대상은 특정한 담론이 사회의 다양한 지식-담론들과 관련 속에서 어떻게 대상으로 출현하는 계기가 되느냐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영화가 여성의 성적 욕망에 관한 담론을 어떻게 대상(영화의 주제)으로 삼느냐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는다.

둘째, 담론의 주체는 어떠한 담론이 구성되는데 있어서 사회에서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 담론의 지식들을 말하는 주체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가령 한국영화에서 아내의 성적 욕망에 관한 주체를 분석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복수의 주체를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의 성적 욕망은 단일한 주체인 아내가 말하는 것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담론의 영역은 특정한 담론이 대상이 되어 다양한 주체들이 말하는 '진술체계'들이 규칙적인 방식으로 담론이 구성되는데, 바로 그것들이 다양한 담론들로 영역화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영화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이 영화의 대상이 되어, 의학, 법, 사회 혹은 도덕적 규범들 차원에서 말하는 '진술체계'들이 서로 연관되어 여성의 성적 욕망이라는 특이한 영역들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담론의 실천은 특정한 담론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담론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성적 욕망이라는

담론을 대상으로 법담론이나 교육담론 혹은 의학담론 등이 그것에 대한 지식을 산출하면서, 인간의 육체에 대한 앎을 구성하고 동시에 인간의 신체에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 관계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3. 관능적인 육육과 탐닉당하는 여인

1) 관능적인 육육과 성적 히스테리

1960년대 아내의 혼외관계¹²⁾에 대한 성적 욕망은 남편의 금욕주의로 인한 부부간의 성적 갈등과 가족의 위기가 문제시되었다면, 1980년대 그것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무관심에 따른 아내의 관능적인 육육과 성적 히스테리가 증척되어 문제시된다. '관능'이란 '감각에 속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관능적인 사람이란 감각이 제공하는 쾌락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그 세계가 주는 즐거운 쾌락을 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이 영화의 주제로 나타날 때, 관능적인 육육이란 생물학적으로 성욕이 강한 여성을 일컫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적 행위와 쾌락에 집착하는 욕망을 포함한다. 그리고 관능적인 육육이 강한 여성은 남편과 성적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적 히스테리를 일으키게 되고 남편이 아닌 다른 성적 대상과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등 혼외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라틴어로 *Adulterium*은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다의 뜻이다. 오늘날 간통의 법적 개념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전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결혼한 여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 관계를 가질 때 *Adultery*라 했고, 결혼한 남자가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 성 관계를 가질 때 *Fornication*이라 했다. 또한 간통자가 기혼일 때 이중간통(*double adultery*), 미혼일 때 단순간통(*single adultery*)이라고도 구분한다. 오늘날 보통 간통의 사회학적 개념은 기혼자의 혼외관계를 가리킨다. Slovenko, R., "Adultery and Fornication", Kadish (ed.),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New York: Fress Press, 1983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아내의 성적 욕망과 혼외관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애마부인」이 대표적이다. 주인공 수비는 한 남편의 아내이고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며, 관능적이고 섹시한 여성이다. 남편과의 갈등은 그녀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과 욕욕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잦은 외도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욕욕이 강한 여인이고, 일상의 권태와 성적으로 충족되지 않아 아주 히스테리칼한 여인이다. 수비는 남편이 아무리 피곤해도 욕욕의 충족과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성 관계를 요구한다.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적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성적 히스테리를 보이고 급기야는 옛 애인이나 연하의 연인과 성적 쾌락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러한 아내의 욕욕과 성적 히스테리가 혼외관계의 동기로 출현하게 된 것은 당시 사회의 담론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80년대 성적 욕망에 관한 담론들은 주로 가출과 흔들리는 유부녀들의 혼외관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¹³⁾ 즉 부부간의 갈등에서 아내의 우울증과 자학심리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가정파괴를 결과하는 것이 곧 아내의 가출이라는 담론과 연관된다. 부부관계의 악순환에서 아내의 우울증은 점점 강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결국 노이로제나 정신병이 되거나 가출충동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¹⁴⁾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이란 가출과 정복당하고 싶은 욕망 즉 혼외관계를 의미한다.¹⁵⁾

이러한 담론들은 부부간의 갈등이 아내의 가출과 춤바람을 야기시킨다는 것과 그것은 곧 여성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욕욕이 보다 근원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 온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편견과 관습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의학담론들이 세밀하게 전문화되면서 공고화되었다. 즉 아내의 가출 동기가 아내의 히스테리에서 유발되는 것이며 여성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복당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욕의 주체라는 논리이다. 그리고 아내의 가

13) 백상창, 「아내의 가출」, 《여원》 1981년 8월호, p.345.

14) 백상창, 앞의 글, p.345.

15) 송유식, 「가출의 심리: 자기희생이라는 아리송한 가출동기」, 《여원》 1980년 4월호 p.357.

출이 가족이나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 자신의 불안과 우울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본능적인 욕욕과 성애화(erotization)의 대상이 된 여성의 몸은 여성 육체의 히스테리화 즉 여성 '육체를 성적 욕망으로 가득찬 몸뚱아리'로 간주하는 병리학과 정신분석학의 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푸코에 따르면, 성적 욕망 장치들에 의해 성적 욕망의 최초의 제물이 된 존재들은 '한가로운 여자' '일이 없는 여성' 이고, 이 여성은 '신경질적인 여자', '짜증에 빠진 여자'로 출현하면서 여성의 히스테리화¹⁶⁾가 담론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의 정의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도 한가로운 여자나 우울증과 같은 신경질환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히스테리가 성담론에서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몸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산출해 내는 지식과 특정한 권력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거점이 된 것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영화에서도 여성의 성적 욕망은 욕욕과 성적 히스테리라는 차원에서 담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애마부인」에서 아내의 성적 욕망은 이제 '신경질적인 여자', '짜증에 빠진 여자'가 욕욕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히스테리와 우울증으로 인한 가출과 직결되고 그것은 가정파탄의 주원인이 된다는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애마부인」에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공격적인 증오심과 신경질적인 히스테리를 보이며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은 목적으로 가출과 곧이어 혼외 관계를 선언한다.

수비: 이젠 더 참을 수 없어요.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잠자리를 원했을 때 마다, 당신은 무참하게 날 거부했죠.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때 내가 받은 상처와 비참한 굴욕감을 당신은 모를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런 상태를 살 수 없어요.

16) Foucault, M., *Histoire de la Sexualité I-La Volonté de Savoir*, 이규현(역), 『성의 역사』 제1권, 나남, 1990, p.134.

현우: 어떡하겠다는 거야?

수비: 당신과 똑같이 하겠어요. 술을 먹구 새파란 청년과 외박도 하겠어요. 그때가 되면 당신도 알게 될거예요.¹⁷⁾

「애마부인」에서 아내의 히스테리와 신경질적인 반응은 일상의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결핍과 관능적인 육욕충족의 좌절감에 기인한다. 아내의 성적 욕망은 남편과 채워질 수 없는 사랑과 성 관계에서 비참한 굴욕감과 우울증이라는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성적 불만족과 자신의 성적 욕망 그리고 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그녀의 입으로 말하게 되자마자, 가족의 위기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된다. 즉 남편은 아내를 부정한 생각을 품고 있는 여자로 낙인찍고, 분노한 나머지 집안을 뛰쳐나가 유부녀를 희롱하는 이야기를 즐기는 제비족들과 싸움을 하게 된다. 결국 남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고, 이 불행은 부정된 성적 욕망을 말한 아내 때문이다. “육욕이 강한 아내가 남편을 잡아먹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한다. 부부관계의 악순환 속에서 여자의 가출은 가족이나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낳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¹⁸⁾으로 규정된다. 아내의 성적 욕망은 끝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내던지고 싶은 욕망, 달리 말해 정복당하고 탈선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병리학적인 욕망과 연결된다. 이렇듯 1980년대는 여성의 육욕과 성적 히스테리가 심리적이고 병리학적 대상으로 출현하게 되고, 그것은 가족관계나 부부관계의 위기라는 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다.

2) 성적 쾌락과 매저키즘적 욕망의 주체

1980년대 영화들에서 아내의 성적 욕망은 자신의 입으로 육욕과 자신의 성

17) 앞의 영화, S#. 16.

18) 김후란, 「여자의 가출은 열병인가 유행인가?」, 《여원》 1980년 4월호, p.354.

적 쾌락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나타난다. 당시의 사회의 담론들의 지형은 아내의 육욕을 다양한 담론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것이 사회의 병리현상과 잠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위기론과 다른 한편으로, 본능적인 육욕을 자연스럽게 활용해야 된다는 성 해방론이 공존해서 나타난다. 즉 성담론들은 여성의 몸의 히스테리를 대상으로 삼아 여성의 성적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욕구 충족은 본능적인 투쟁이라는 것을 강화시킨다. 후자의 관점들은 여성이 성적 쾌락을 표현하고 활용하는 주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이 억압된 이유는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인 환경의 변화에 정신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또한 욕구나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은 '순교자적 콤플렉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제 여성의 성적 욕구는 부도덕한 것이라는 금기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연스런 본능의 욕구라는 차원으로 인식이 전환된다.¹⁹⁾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는 여성을 가혹한 여성이라고 믿는 것은 오히려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²⁰⁾는 것이며, 따라서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성적 표현과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육욕의 주체로서 성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여성의 성적 욕망이 담론의 표면에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여성 주체들이 성적 쾌락을 활용하는 사례들과 그 표현방법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기에 이른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것과 마치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처럼 꾸미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남편을 돌구어 주기 위해 오르가즘에 도달한 것처럼 위장하지 말라.(...) 말과 몸짓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좀 더' '부드

19) 김인자, 「대특집: 오늘의 여성, 무엇이 고민인가- 운명야, 비켜라 내가 간다.」, 《여원》 1981년 5월호, p.128.

20) 앞의 글, p.129.

럽게' '천천히' '빨리' '거기' '그만' 하고 그에게 알려주라는 말이다.²¹⁾

이처럼 아내는 부부간의 성 관계에서 성적 쾌락을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쾌락에 대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가식없이 하라는 것이다. 즉 성적 행위에 있어서 여성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라기 보다는 남편이 성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 아내는 자신의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한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적 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로서 여성의 욕욕이 집중되면서 한편으로 성적 쾌락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들이 공개된다. 즉 의학지식들은 아내의 불감증, 자위행위, 이쁜이 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등으로 성적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²²⁾해 나가도록 권고한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남편의 외도를 막는 아내의 지혜는 곧 아내가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불만을 해소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애마부인」의 아내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욕욕의 화신이자 애초부터 욕욕이 강하고, 성적 쾌락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적 주체이다.

끌어오른 욕정에 안타까운, 그러나 현우는 세상 모르고 잠만 자고 있다.
자신의 젖무덤에 현우의 손을 끌어올려 놓는 수비.

21) 「아내의 성/ '사랑'에 자신 있나요?», 《여원》 1983년 5월호, p.501.

22) 한국에서의 성 치료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야 몇몇 정신과 의사에 의해 산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성에 대한 연구 역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종설적 분석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사회가 급격히 현대화, 서구화 되어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종전에 비해 성기능 장애나 성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이 모아졌다. 기혼남녀의 성기능 장애 빈도조사에서 성인 남자는 33.8%가, 성인 여자는 54.2%가 어떤 형태든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우려한 적이 있다라는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의학적, 치료적 욕구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유계준 외, 「성기능 장애 클리닉 내원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한국임상 성(性)학회지》, 제2권, 제1호 1990, p.78.

반응이 없다.

자기 쪽으로 현우의 몸을 세우는 수비.

현우, 귀찮다는 듯 뿌리치고 돌아놓는다.

뜨거운 육체와 상처받은 자존심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수비의 얼굴 크로스업 되면서.²³⁾

이 영화에서 아내가 남편이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꿍어오르는 성적 욕구를 드러내고, 남편에게 끊임없이 거부당하면서 성적 불만족과 고통에 괴로워하는 히스테리를 보이는 주체라는 것이 부각된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지만, 성적 행위에 있어서 매저키즘적이고 남편은 매번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새디즘적인 성적 권력을 행사한다. 아내는 그런 성적 권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자존심의 상처와 비참한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결국 그녀의 성적 갈망과 성적 환상은 ‘맹렬한 스피드로 달리는 말’과 ‘땀 맺힌 아내의 얼굴’ 이미지로 형상화 되고, 그녀의 성적 욕망의 불만족은 ‘갑자기 앞발을 들고 달려가 버리는 말’과 ‘흙투성이가 된 수비의 안타까운 얼굴’로 형상화된다. 끝내 아내는 ‘방바닥의 카펫트를 움켜쥐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정서불안과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도저히 자신의 욕욕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좌절하는 주체로 구성된다.²⁴⁾

이렇게 수비는 충족 될 수 없는 욕망에 고통스러워하고, 제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육체를 자학하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성도착²⁵⁾을 보인다. 성적 행위

23) 정인엽 감독, *애마부인*, S#. 13.

24) *앞의 영화*, S#. 52.

25) 새도매저키즘은 일반적인 성행위(sex)뿐만 아니라, 사회가 전통적으로 일탈로 여겨온 성행위의 유형까지도 암시한다. 크레프트-에빙이 그의 책 제목에서 새도매저키즘을 ‘심리병리학’으로 규정한 것처럼, 프로이트는 새도매저키즘을 ‘성도착(perversion)으로 범주화하였다. Chancer, L. S., *Sadomasochism in Everyday Life: The Dynamics of Power and Powerlessness*, The Charlotte Sheedy Literary Agency, Inc. 1992, 심영희(역), 『일상의 권력과 새도매저키즘—지배의 논리와 속죄양 만들기』, 나남, 1994, p.40.

의 주도권에 있어서 남편은 강제적이고 새디즘적이며, 아내는 어떠한 권한이 없고 매저키즘적이다. 부부관계는 철저히 새디즘과 매저키즘적 관계를 띠고서 성적 권력 관계에서 지배와 종속의 관계성을 띤다.

아내의 육욕은 남편과 다른 성적 대상인 문오와의 섹스에서 신음소리, 열락의 순간의 반응, 광기와 같은 움직임 등 본능적으로 표현된다. 문오와 수비는 본능적인 육욕과 관능적 쾌락을 격렬하게 즐긴다. 그러나 수비는 혼외관계의 대상이었던 문오와의 성적 관계에서도 철저히 새도매저키즘적이다. 새디스트란 그 혹은 그녀가 지배의 위치에 올라가는 데에서 쾌락을 찾을 때 새디스트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새디스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지배라면, 매저키스트는 반드시 종속적이어야 한다.²⁶⁾ 그러므로 성적 권력의 불평등은 새디스트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매저키스트에게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매저키스트는 어느 정도 비하되고 굴욕을 줄 필요가 있으며, 새디스트의 권력이 보다 강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녀 혹은 그는 그 혹은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이러한 의존은 심화되어 있고,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²⁷⁾

공포로 굳어버리는 수비,
 새디스틱한 광도로 터뜨리는 알몸의 문오, 점점 조여드는 벽들
 수비를 바라보는 잔인한 놈들
 그리고 비웃는 웃음소리들
 후후 히히 흐흐 짹짹 거리는!
 수비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지른다.(울려 퍼지는 비명)²⁸⁾

문오가 수비의 양팔을 묶고 거칠게 공격하는 것은 그녀와의 성적 관계에서 불평등하게 제한하려는 욕망이자, 그녀를 철저히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

26) 앞의 책, p.76.

27) 같은 책, p.76.

28) 정인엽 감독, 앞의 영화, S#. 55.

출이다. 문오의 경우, 수비를 묶은 뒤 가학적인 웃음을 지으며 수비에게 마치 “내가 없으면 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경멸스런 시선을 보인다.²⁹⁾

문오: 수비, 사랑한다. 년 예전에 내 거였어 이제 돌아온 거야.

(거칠게 입술을 부벼댄다. 공포감이 사라지며 어쩔 수 없는 육체의 욕망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수비. 그러나 점차 약해지는 목소리. 문오, 수비의 눈을 태워버릴 듯 바라보면 이미 저항력을 잃어버린 수비의 눈빛, 체념한 듯 눈을 감아버린다. 옷을 벗어 팽개치고 거세게 수비를 껴안는 문오. 폭발해버리는 수비의 뜨거운 육체와 육체가 부딪치며 이제 그들에게는 인간의 모습을 버린 두 마리 들짐승처럼, 오직 관능적 쾌락의 추구만이 있을 뿐이다.)³⁰⁾

새도매저키즘적 성적 욕망은 그들의 성적 관계에서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가학하고 또 피학성을 띤다. 그것은 곧 일탈적인 쾌락만족의 경험을 고조화시키고, 공생의 관계임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비는 비록 문오와의 공생적인 관계에서 쾌락과 환희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혼외관계라는 죄의식과 자책감 성적 관계에서 완전히 종속당한 상태에서 일탈적인 성적 쾌락을 즐긴 자신에 대한 혐오로 끊임없이 갈등한다. 더 나아가 문오가 성적 권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수비는 자신의 남편 혹은 아이를 상실할 것이라는 무서움으로 고통을 겪는다. 다시 말해, 그녀는 가부장제를 벗어날 권력도 없고, 가학적이면서 지배적인 문오의 권력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녀는 어쩔도리 없이 어느 누구에게든 종속당할 수밖에 없는 매저키즘적 성적 욕망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성적 주체임을 그대로 드러낸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의 성적 욕망은 수동적이고 일반적으로 성적 공세를 받으면서 매저키즘적이듯이, 다른 성적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비록 아내(불

29) 앞의 영화, S#. 92.

30) 같은 영화, S#. 88.

룬너)의 성적 욕망은 능동적이고 격렬하지만 여전히 매저키즘적이다. 이 사실은 아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주체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곧 제도나 지배적인 윤리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끝내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인간으로서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찾아나가면서 현실적인 삶의 질곡과 모순들을 극복해 나가는 주체라기 보다는 결혼제도 안의 아내임을 내면화한 여성이라는 전제하에 자신이 성적 위치와 책임을 일탈했다는 가부장 제도나 남성 중심의 지배적인 윤리 규범에 종속되는 주체로 재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3) 성적 환상과 치료의 대상으로서 성적 욕망

1980년대 「애마부인」에서 일상의 삶의 무료함과 아내의 성적 갈망에 대해 자위와 오르가즘과 같은 성적 환상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아내의 욕욕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히스테리칼한 정신의 문제가 된다. 당시 과학적으로 규명된 의학 지식-권력은 성적 쾌락을 선동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80년대에 접어들어 성담론은 여성 육체에 관한 담론이 다량화되면서³¹⁾ 피임 성교가 일상화된다. 점점 쾌락을 위한 성행위가 출산 목적을 압도하게 됨으로써 부부의 성에서 출산을 위한 성행위와 쾌락을 위한 성행위가 완전히 분리되기에 이른다.³²⁾

이처럼 성의학이 일반분과에서 독립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부부들의 성기능 향상을 위해 즉, 부부성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학 지식-권력과 연합하여 성의 쾌락을 위해 채위를 연구하는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관

31) 1980년대에 접어들어 여성의 육체는 성적 쾌감, 육체미, 건강 차원에서 담론화된다. 즉, 여성 신체의 각 부위가 건강, 미용의 관점뿐만 아니라 '성'과의 관계하에서 실험적 성(性)학자 등에 의해 성감대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담론화된다. 점점 육체는 이상적인 크기, 모양과 더불어 성분까지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 육체의 외형을 침투해 들어가 여성의 눈동자, 걸음걸이 등을 통한 육체의 담론이 다량화된다.

32) 《여성동아》 1984년 5월호.

여하게 된다. 만족한 성생활을 위한 의사들의 배려는 신체의 감각뿐만 아니라 정신의 관리를 중요시한다. 그들은 불감이 아닌 권태로 인한 섹스트러블의 영역을 새삼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켜서 섹스를 정신적 문제로 설정하기에 이른다. 이제 의학지식은 섹스트러블의 원인을 침실이 아닌 자신의 머리 속에서 찾도록 처방을 내림으로서 부부의 성에 대한 침투선은 침실뿐만 아니라 정신에까지 확장시킨다. 푸코의 주장처럼, 우리사회에서도 성담론들은 점차적으로 의학적 제도와 정상성의 요구에 따라 구성되어 왔고, 또한 그것은 죽음과 영원한 징벌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삶과 질병의 문제에 관련하여 정립되어 왔다. 아내의 성적 욕망을 향한 카메라의 시선은 끈질기게 상투적인 섹스 심볼 즉 벌려진 입과 오르가즘을 느끼는 엑스타시한 무아경과 신음소리를 보여주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정신적 갈망 차원에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재현된다.³³⁾

카메라 서서히 줌 업되면서 땀이 맺힌 채 움직이고 있는 남자와 잔등.

그 남자의 머리 곁 입을 벌린 채 황홀한 표정의 수비.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엑스타시의 무아경을 헤매고 있다.

-화면을 가로막는 쇠창살

그 속에 갇혀 있는 흑마 한 마리

미친 듯 서성이며 탈출을 기도하는 듯 창살에 거세게 몸을 부딪힌다.³⁴⁾

「애마부인」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 보다 세부적으로 재현되고, 사랑의 행위로서 여성의 욕구의 충족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자기만족이나 배려의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투사, 환각, 환상의 광란³⁵⁾으로 특징된다.

의학담론이 인체에 대한 일반의학부터 분리되면서 여성의 성적 욕망은 비

33) 앞의 영화, S#. 2.

34) 같은 영화, S#. 3.

35) Webb, P., *The Erotic Art*, New York:Graphic Society, 1975, p.253.

정상, 후천성, 이상변형, 신체장애 또는 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성적 본능」으로 영역화된다. 푸코가 성적 욕망의 장치와 권력간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성적 욕망이 집요하게 인간의 내면적인 것까지도 깊숙이 파고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성은 틀림없이 성적 욕망 장치와 그것의 작동에 의해 필요하게 된 관념적인 지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³⁶⁾라는 푸코의 주장과 연관시켜 보면, 이제 한국영화가 문제로 삼고 있는 여성의 성적 욕망은 여성 육체의 내부 즉 정신의 영역에까지 침입시킨다. 그리고 성적 행동의 표면 저변에 있는 성적 에너지, 감각, 쾌락 등과 같은 것을 문제삼고, 그것을 이미지화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영화는 그러한 성적 욕망을 분산시키면서, 그것들에 대한 환각적인 증세, 관련 부위들의 쾌락을 특성화하고 있다.

또한 「에마부인」에서 인간의 성적 욕망의 자연적 본능성이 병원에서 육욕과 섹스의 억압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아내의 육욕은 치료의 대상으로 특성화된다. 푸코에 따르면, 18세기나 19세기부터 성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 낸 발원지가 의학의 ‘신경질환’에서 정신병학의 ‘방탕’, ‘자위(onanisme)’, ‘육구불만’ 그리고 사회병리학의 ‘생식에서의 부정행위’로 점차 세부적인 정신병의 병인론을 탐구한 데 있다. 특히 성적 도착 전체를 자체의 고유한 영역으로 편입시켰을 때 가장 내밀한 성적 욕망이 총동화되어 드러났다. 동창회 친구인 에리카가 수비를 ‘니르바나 종합건강센터’에 데리고 가 지압을 받도록 하는 장면이 있다. 병원에서 의사는 인간의 섹스란 자연적 본능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섹스는 억압할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분출해야 하는 것이 된다.

어느 방

(알몸의 수비, 의료용 침대 위에 엎드려 있다. 수비의 등과 다리, 곳곳에 가느다란 침들이 꽂힌다.)

36) Foucault, M., 이규현(역), 앞의 책, p.167.

의사:(소리) 섹스란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연의 리듬을 거역할 수 없게 되어있죠. 모든 병은 자연의 리듬이 깨지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³⁷⁾

이제 애마의 억제할 수 없는 욕욕은 치료의 대상이 된다. 치료의 대상이 되기 전, 애마의 욕욕은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분출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곧 자신의 가정과 남편을 배반하고 기존의 가족 제도를 위반하는 병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치료의 대상이 되고 난 후, 아내의 욕욕은 다른 성적 대상을 취하지 않고도, 의학적 지식을 통해 통제되고 조절되는 것이 된다. 아내의 욕욕과 그것으로 파생되는 우울증과 심리적인 히스테리는 치료로서 해소될 수 있으며, 성적 도착과 환상 역시 건강하게 치료 가능한 것으로 일탈적인 욕욕의 분출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지니게 된다.

4) 육체의 히스테리화와 성적 욕망의 관리화

이 영화의 특징은 아내의 욕욕의 억압이 정신 신경증과 결합되어, 서사구조의 전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열쇠가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애마부인」에서 애마의 성적 불만족은 남편과의 관계속에서 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아내 자체의 욕욕에 중심을 두고, 여성의 성적 욕망을 육체의 신경증과 히스테리화로 담론화시켰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욕망은 첫째, 온통 성적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몸뚱아리로 분석되었고, 이미 아내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아내의 성적 욕망 특히 불륜녀에 대한 성적 욕망은 술집이나 카바레 혹은 동창회 모임이라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남성들이 만들어내는 섹스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공간에서 아내의 혼외관계와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주로 성기중심적이고, 과장적이며, 음담패설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유부녀의 욕욕은 비

37) 앞의 영화, S# 76.

윤리적이며 죄의 근원으로 등치시킨다.

청년1: 야, 고 기집애 그거 감질나게 놀던데 부르스를 추는데 말이야. 슬쩍 다릴 밀어 붙였더니 착 달라붙더라구. 온몸이 불덩이 같이 뜨끈뜨끈한 게 말이야.

청년2: 자샤, 기집애라니 유부녀야 유부녀. 남편이 버젓이 있는 몸이라구.

청년 3: 나두 한 번 돌려봤어. 호호호 빠이프 해파리 되는거지 호호호.

청년2: 그 남편이란 새끼두 참 날 샌 놈이다. 사홀에 한 번씩만 사랑해 줘도 그렇게 춤바람은 안 났을텐데 말이야 히히히.³⁸⁾

남자: 이것 봐, 중동갔다 온 사람이 아넬 찢러 죽였어. 춤바람이 나서 송금 한 돈을 다 써버렸대. 아이구, 내가 중동 안가기를 잘했지.³⁹⁾

이와 같이 「애마부인」에서 고고족 남성들이 술집에서 말하는 여성(불륜녀)의 성적 욕망은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끈뜨끈한 것”이고, 그녀의 남편이 욕욕을 만족시켜 주지 못해 결국 춤바람이 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끝내 가족제도에서 이탈하는 쾌락을 결과함으로써 가정파탄을 가져오는 위험한 것으로 배제시켜 버린다.

둘째, 여성의 성적 욕망은 단순히 육체에 국한되어 병리학과 연관되어 의학적 실천의 영역에 통합시켰다. 대상화된 여성의 육체가 남성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여 그 여성을 범하고 싶은 범죄적, 가학적 성적 욕망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영화는 여성의 육체가 못 남성들의 음욕을 충동질하고 자극하는 것으로 대상화시켜버린다.

기차내

수비의 곁에는 개기름 흐르는 40대의 대머리

스커트 아래 드러난 수비의 동그랗고 탐스러운 무릎과 종아리를 음탕한

38) 정인엽, 앞의 영화, S#. 18.

39) 같은 영화, S#. 11.

눈으로 슬금슬금 훑쳐보고 있다. 사내의 그런 기색을 눈치채고 있는 수비. 자꾸만 스커트를 끌어내린다. 수비의 그런 동작이 음욕을 자극하고 사내, 마시고 있던 맥주를 한 컵 따라 수비에게 권한다.⁴⁰⁾

남성이 한 여성을 볼 때, 그 여성의 실존적 상황과 삶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성적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단순히 여성의 육체를 부분부분으로 조각내서 가슴, 엉덩이, 종아리 등을 대상화해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자극받는 것이 된다. 위의 인용구에서 알 수 있듯이, 「애마부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차 내에서 수비의 육체가 분할적으로 대상화되어 불특정 남성에게 성적 자극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능적으로 육욕이 강한 여성은 언제나 그 어떠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과 강간당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⁴¹⁾

마지막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은 가부장제도, 가족공간, 자식들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어머니’는 ‘신경질적인 여자’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이 히스테리화의 가장 돋보이는 형태를 이룬다.⁴²⁾ 그리고 신경질적인 여자가 다른 성적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부정(不貞)한 것이고 비정상적임을 더욱 공고화 한다.⁴³⁾

「애마부인」에서도 수비는 여성의 본능에 있는 정복당하고 싶은 욕망과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자 육체의 히스테리화는 성적 환상과 우울증으로 병적인 집착에 가깝게 된다. 그리고 탈선하고 싶은 욕망은 옛 애인은 물론이고 새 연인과의 섹스로 실현한다. 그런데, 수비의 가출과 혼외관계가 자신의 육욕의 해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끝내 부정(不貞)스러운 것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교회의 간섭과 생식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교회의 거부가 지난 200년 전부터 그 집요함을 잃어 온 반면에

40) 같은 영화, S# 27.

41) 같은 영화, S# 120.

42) 앞의 책, p.118.

43) 앞의 글, p.357.

의학은 부부의 쾌락 속으로 대거 들어왔다. 의학은 ‘불완전한’ 성경험에서 생겨난 기관, 기능 또는 정신의 질환을 위한 온갖 병리학을 생각해냈고, 부속적인 쾌락의 모든 형태들을 주의깊게 분류하여, 그것들을 본능의 ‘전개’와 ‘교란’에 통합시켰으며 그것들의 관리에 착수했다.⁴⁴⁾ 푸코의 지적대로, 여성의 육체는 역사적 차원에서 히스테리와 연결되어 왔다. 그것은 여성의 육체가 육욕을 상징하고 비이성적인 것과 결부시킴으로서 정신과 이성적인 것을 관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말해, 1980년대 여성의 성적 욕망에 관한 영화들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의학 지식-권력을 동원해 정신병적이고 병리학적인 것으로 세분화시켰으며, 끝내 여성의 육욕은 의학적인 관리의 대상임을 유포시킨다. 수비의 육욕의 분출은 여성의 육체의 히스테리의 결과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도, 영화적 관점에서도 애초부터 여성의 육욕의 분출은 그 자체로서 도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다. 영화가 그런 사실을 이용하면서도 여성의 육욕을 충동화하는 이유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상과 비정상적인 것 그리고 이성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간의 경계를 구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상과 이성적인 것을 제정위하고 있다.

4. 매춘과 유희적 쾌락의 여인

1) 아내의 매춘과 도구적 섹스

1960년대 매춘⁴⁵⁾행위에 대한 사회의 담론들은 매춘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44) 앞의 책, p.58.

45) 윤락이라는 영어단어는 ‘아테네의 제물’이라는 뜻의 *prostate*에서 유래된 것이다. 법적 인 정의에 따르면 매춘이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한

대한 상황분석과 실태조사에 그쳤다.⁴⁶⁾ 즉 매춘여성들은 기질적으로 욕욕이 강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의식이 없고, 색기가 유독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춘은 여성 개인의 '성적 비행'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 매춘은 상대적 빈곤감과 사회적 구조의 요인에 따른 매춘여성을 문제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춘은 여성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족생활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문제로 보게된다. 즉 집안의 가장이 실직하거나 병으로 쓰러지면 일가족은 굶주림의 위협에 당장 직면했을 때 몸을 팔지 않으면 안되고 유교적인 윤리적 갈등이 생긴다 해도 이런 것은 합리화된다.⁴⁷⁾ 우리나라가 1970년대 들어 매춘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수출 지상주의를 내세워 외화 획득이란 미명하에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한 정권 담당자들의 물질우선 정책에 기인한다. 또한 농촌 경제의 침체, 빈부격차의 심화, 윤리 의식이 저하된 전반적인 사회풍조, 허술한 법체계 등도 매춘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⁴⁸⁾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무책임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몸을 팔면서도 유흥적 쾌락을 즐기는 아내라는 위치에 있는 매춘여성이 문제시된다. 그러므로 매춘의 원인은 '경제적 여유'와 '유흥적 쾌락의 충족'이다. 특히 욕욕의 충족이라는 담론이 활성화 되면서 매춘은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고 지배적인 성윤리 의식을 마비시키는 병리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아내들의 성적 욕망은 삶의 본능이자 생존 본능으로 가득찬 매춘 여성으로 가정을 지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매춘을 통해 자신의 욕욕과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리나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제2조 용어정의)을 보면 본 법에서 윤락행위는 특정 인물로부터 금전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성행위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46) 최혜재, 「매춘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1962.

47) 「80년대 기생관광」, 《여성동아》 1984년 6월호, pp. 154-155.

48) 「베일에 쌓인 한국의 매춘산업, 그 천의 얼굴과 몸을 발가벗긴다」, 《여성동아》 1988년 2월호, p.252.

간단히 말해 일반적으로 매춘 담론은 생계형 매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1980년대 매춘에 관한 담론은 경제적 목적과 여성의 성적 쾌락의 충족이라는 것과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경제적 목적을 위한 아내의 매춘을 보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에 따른 혹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것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도구적 섹스가 된다. 비록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도 기존의 가족제도를 철저히 지켜나간다면 아내의 매춘은 묵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매춘이 사회의 병리학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아내의 '유희적 쾌락'을 부각시킴으로서 가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80년대들 어 영화는 성적 욕망에 관한 담론의 대상으로 생계를 위한 도구적 섹스와 아내의 유희적 쾌락⁴⁹⁾으로서 매춘을 문제삼는다. 예를 들어 「감자」에서 복녀는 나이많은 홀아비에게 팔려온데다, 무능력한 남편과의 관계는 애정에 기초한 정상적인 형태의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다. 「뽕」에서 안협네의 경우, 애정에 기초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무능력한 남편으로서 아내의 매춘을 정당화시켜줄 만한 객관적인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매춘은 이중적 차원에서 문제시된다. 먼저 아내의 매춘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부관계의 비정상성 차원이다. 그러한 절대적 빈곤과 비정상적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복녀나 안협네의 경우,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남편”임을 강조하고 무능력한 남편을 봉양하면서 일부종사한다는 신념을 가진 여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춘은 묵인된다. 더욱이 이들의 매춘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경제적 책임의식과 남편의 암묵적인 묵인 그리고 가동서방으로 나선 남편의 적극적인 이용이 있었기 때

49) 「뽕」은 나도향의 단편 소설 「뽕」을, 「감자」는 김동원의 소설 「감자」를 1980년대에 각색한 문예영화들이다. 이 영화들이 1980년대 한국영화의 성적 욕망 담론의 구성에 대표적인 분석대상일 수 있으나 하는 문제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영화적 시선으로 원작을 19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맞게 각색했다는 점과 이 두 영화들은 생계형 매춘과 유희적 쾌락의 성적 주체로서 여성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문이다.

그러나 매춘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아내가 매춘을 통해 유희적 쾌락을 즐기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윤리적 의식의 마비라는 차원이다. 매춘이 사회적인 일탈과 도덕적인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성의 대상화를 통한 유희적 쾌락으로서 아내의 성적 욕망이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매춘과 도구적인 성 관계를 통해 쾌락을 즐기는 아내의 욕망을 문제삼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정 없이도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아내의 성적 욕망을 들추어내고 그것의 비도덕성을 강화시킨다. 이는 사회의 담론들에서 주부 매춘과 혼외관계에 관한 것을 연관지어 집요하고 들추어내고, 가정주부가 쾌락을 위한 혼외관계를 하면서도 윤리감각이 없다는 비도덕성을 유포시킨 것을 통해 알 수 있다.⁵⁰⁾

그것은 가정주부들이 매춘녀가 되어 몸을 내던지는 것은 주부들 자신들 속에 내재해 있는 쾌락 때문이라는 것을 들추어낸다.⁵¹⁾ 이와같은 맥락에서 「감자」에서 복녀는 염전 관리인에서 잡화상주인으로, 주재소 순사로, 왕서방에게로 자연스럽게 전전하며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성적 쾌락을 즐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뽕」에서 안협네의 매춘은 생계비를 벌기 위한 목적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을 동시에 획득한다. 즉 안협네의 성적 욕망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의 부재시에는 매춘을 한다. 그녀들의 성적 욕망은 모두 유부녀이면서도 매춘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정경제에 일조한다는 자심감은 물론 성적 쾌락의 만족감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말해, 영화에서 아내의 성적 욕망은 매춘을 통해 가족의 위기와 부부관계의 비정상성 차원에서 다루면서도 성적 일탈로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행위 차원에서 문제시된다.

50) 「80년대 기생관망」, 《여성동아》 1984년 6월호, pp. 154-155.

51) 「주부매춘」, 《여성동아》 1989년 8월호, p.175.

2) 팜프파탈적 성적 욕망의 주체

우리나라에서 팜프파탈적 여인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것은 1970년대 호스티스 영화와 1980년대 간통매춘과 관련된 영화들일 것이다. 호스티스 영화에서는 가정 밖에서의 매춘을 통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독립심이 강한 여성으로서 팜프파탈적 모습을 재현했다면, 1980년대 영화들은 가정 안에서 아내들의 매춘을 통해 경제적 독립심이 강하지만 유희적 쾌락을 즐기는 비도덕적인 팜프파탈로서, 궁극적으로는 가족 제도로부터 처벌받는 여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팜프파탈은 성적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하여 남성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한 여인을 뜻한다. 즉, 팜프파탈은 가부장제 틀에 맞는 '내조를 잘하는 현모양처나 좋은 여성'과 대조되는 말로 '부도덕하고 위험한 여인'이다. 1940년대 초에서 1950년대 후반의 필름노와르 영화는 여성 주인공을 비도덕적인 파괴자, 팜프파탈로서 가부장제에 수용될 수 없는 인물로 제시하였다. 필름노와르는 여성을 가정 밖으로 이끌어내고 가정 안에서 제시할 경우에는 가족을 파괴하는 주체로 특징지었다.⁵²⁾

필름노와르가 사회경제적 측면 즉 여성노동력의 증가와 그로 인한 남성 정체성의 위기감을 팜프파탈적 성적 주체를 통해 재현⁵³⁾했듯이, 80년대 한국 영화는 경제적 무능력자로서 남성 가부장의 정체성의 위기와 성기적 쾌락을 추구하는 매춘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가족제도가 위기에 빠지자 예전의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아내의 혼외관계 문제와는 다르게, 아내가 본능적으로 욕욕이 강해서 매춘녀가 되어 혼외관계를 즐기는 팜프파탈적인 주체들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80년대 한국 영화는 가부장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여성이 남성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며, 남성권위의 몰락에 대한 거울이미지로 팜프파탈적인 성적 욕망의 주체로서 매춘녀를 활용한다. 가령

52) Gledhill, C., 「Klute 1: A Contemporary Film Noir and Feminist Criticism」, in E. A. Kaplan(ed.), *Women in Film Noir*, BFI Publishing, 1980, p.19.

53) 앞의 책, p.123.

「뽕」에서 안협네는 전형적으로 팜프파탈적 성적 욕망의 주체이다. 그녀는 가정이 있는 남자를 유혹하여 성적 인 쾌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매춘녀이다. 그녀는 매춘행위에 대한 도덕적 죄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제도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포심도 없다. 더군다나 안협네의 성적 욕망은 자신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려는 여성의 남편을 유혹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기도 한다.

가부장제의 재현물로서 영화 텍스트에서 여성이 구조화되는 방식⁵⁴⁾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여성이 가부장제에 대한 위협의 기표로 나타나는 첫번째 방식은 매혹적이지만 거부해야 하는 위험한 성적 매력을 통해서이다. 안협네나 복녀는 육체적으로 매혹적이고 탁월한 성적 능력을 지닌 주체이다. 그리고 그녀들의 성적 매력은 동네 가정의 위기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것이다. 「뽕」에서, 동네 아낙들이나 안협네라는 여성들은 모두 서로에 대한 분노와 복수본능을 가지고 있다.⁵⁵⁾ 그러므로 이 여성들의 성적 매력이 충분히 이용되고 충동화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성적 주체라는 것을 예시해주기 위함이다.

두번째 방식은 가족이라는 가부장제의 1차원적인 공간을 거부하거나⁵⁶⁾ 지배적인 가족질서를 파괴하는 관능적인 마력이다. 「뽕」에서 남편이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란 공간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안협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춘을 하면서 가부장제 가족이란 형태를 파괴한다. 또한 「감자」에서 복녀도 가족이란 가족형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집에 왕서방을 끌어들여 성 관계를 가질 정도로 관능적인 마력을 행사한다. 이 두 영화에서 동네 남자들은 복녀와 안협네에게 유혹된 경우에는 어떤 도덕적 사고도 모두 잃게 된다. 특히 「뽕」에서 동네사람들이 안협네를 쫓아내기 위해 가부장제 권력의 상징이자 도덕의 수호자로 초시어른을 모시는데, 그 역

54) Cook, P.(ed.), *The Cinema Book*, Pantheon Books, 1985, p.94.

55) 앞의 영화, S#. 64.

56) Harvey, S., "Woman's Place: The Absent Family of Film Noir," in J. Copjec(ed.), *Shades of Noir*, Verso, 1993, pp.22-34.

시 안협네의 관능적인 마력에 유혹되어 금지된 쾌락을 즐기게 되고 그마저 도덕은 망각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안협네는 팜프파탈을 통해 삶을 이끌어가는 강인한 여성이고,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재라는 불행한 운명을 부여받은 성적 주체이다. 결말부분에서 그녀의 남편인 삼보가 또 다시 떠남으로서 정상적인 가족제도로 편입되지 못한 채, 그녀의 삶은 불안한 채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처벌받는 비극적인 여성인 것이다. 「뽕」과는 다르게 「감자」에서 복녀는 돈과 쾌락의 대상인 왕서방을 유혹하고 지나치게 집착한다. 그녀는 왕서방이 결혼하려 하자 그에게 달려가 살인적인 본능을 보인다. 돈과 쾌락을 보장해준 왕서방의 변심은 그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계가 또다시 막막해진다는 불안이 그녀에게 살인적인 본능을 유발케 한 것이다. 왕서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왕서방에게 그녀가 살해되고, 그녀의 죽음 또한 순사와 왕서방 그리고 남편의 돈거래로 마무리된다. 분명히 그녀는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인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모르게 남자들의 거래로 인해 사회에서 제거된다. 「감자」에서도 복녀의 이미지는 위협적이며 또한 잠재적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독립적인 성적 주체이다. 그러나 끝내 욕욕이 강하고 팜프파탈적인 복녀는 처벌받는 주체로 남성권력에 의해 제거된다.

이와 같은 서사구조는 필름느와르처럼, 처음에는 팜프파탈을 통해 강인한 여성을 보여주지만, 결말에서는 그런 여성은 처벌받고 제거되는 성적 주체임을 강조한다. 영화는 가부장제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 여성을 극단적인 방법, 죽음으로 벌함으로써 남성권위에 도전한 대가를 여성에게 요구한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의 주체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팜프파탈적인 여성이며, 그 여성을 통해 가부장제도의 위기와 남성 가부장의 약화된 남성성을 보여준다. 영화는 남성중심 사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팜프파탈적인 여성의 다양한 이미지와 성적 욕망을 담론의 주체로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병리학과 성기적 섹스의 대상으로서 성적 욕망

「애마부인」에서 애마의 욕욕이 의술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감자」에서 복녀의 욕욕은 의술적으로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의사는 남편보다 아내의 양기가 세계 되면 아이가 생길 수 없다고 말한다. 아내의 성적 욕망은 억제하기 위해 한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라면, 남편의 성적 욕망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묘약을 먹도록 권고한다.

최주부: 남자의 양기보다 계집의 양기가 세계 되면 아이가 안생기는 법이 구먼.

복녀: 지가 그렇단 말씀이여유? 아이고 그럼 위똥하면 된대유.

최주부: 아! 약을 써야지.

(중략)

복녀: 그렇게 신비한 약인 감유?

최주부: 아 반신불수에도 좋지만은 남자의 정기를 돋구는 데는 신약중의 신약이지.

(중략)

최주부: 염려들 말어 내 대쪽처럼 싹 고쳐 놓을 것임께.⁵⁷⁾

한의학의 지식-권력은 여성의 욕욕은 약화되어야 할 대상이고, 남성의 욕욕은 강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구별한다. 만약 여성의 욕욕이 강할 경우,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여성은 욕욕이 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녀가 너무 욕욕이 강한 여자라서 도덕적 죄의식도 없고, 동네 남성들과 매춘을 하는 등 병리학적 대상이 된다. 사실 복녀는 생존을 위해 매춘을 하는 것인데도, 마치 복녀가 지나치게 욕욕이 강한 나머지 사회질서를 파괴시키는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인 양 전도된

57) 박철수 감독, 감자, S#. 41.

다. 이제 영화에서 아내의 성적 욕망에 관한 한의학적 지식의 동원은 권력행사의 결과이자 동시에 수단이 된다. 여성의 육체에 관한 의학적 지식들은 육체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개인의 뿌리깊은 기질을 문제삼는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의 담론들이나 영화들은 여성의 여러 성적 욕망에 관한 대상들을 드러내고, 여성 육체에의 접근과 농밀한 감각의 놀이를 담론화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의 성적 욕망은 병리학과 성기적 섹스의 대상으로 특성화된다.

「감자」에서 복녀는 염전발 감독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복녀는 처음에는 정조의식이 있었으나 강간을 당하면서도 저항을 한다기 보다는 본능적으로 즐긴다. 즉 여성에게 있어 마치 기분 나쁜 것도 어느수준에 이르면 거의 쾌감에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강간은 성폭력이 아니라 즐거운 고통이 된다는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감독, 복녀 도망다닌다.)

피하려는 복녀에게 다가가는 감독

애무하려는데 빠져 나가는 복녀

놀란 복녀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감독

(중략)

감독이 복녀를 애무한다.

숨이 가빠지는 복녀

감독을 끌어안는다.

정사가 끝난 복녀의 허탈한 얼굴⁵⁸⁾

이렇듯 여성의 육체는 남성에 의해 성기 중심으로 범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본능적 쾌락을 발산하는 기질을 가진 것으로 특성화된다. 강간사건을 계기로 복녀는 수많은 동네 남자들과 섹스를 하면서, 탐욕스런 물질적 욕망과 본능적인 성적 쾌락에 탐닉한다. 그 결과 본능적으로 육욕이 강한 여성과의

58) 박철수 감독, 감자, S#. 29.

섹스가 성기도착적으로 특성화된다. 대표적인 예로 「뽕」을 들 수 있는데, 안협네는 못남성으로부터 성적 유혹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녀는 관능적인 육체를 탐욕스럽게 이용하는 성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온동네에 남정네들은 안협네를 탐욕스럽게 갈망하고, 끊임없이 성적 환상의 대상으로 삼아 섹스신화를 만들어 낸다.

용팔: 아니 그럼 너 아직도 안협집 안 건드려봤단 말여.

구산: 으흠 호응. 아니

용팔: 네йт! 도둑놈들이야 내가 알기로는 여기 삼들이와 칠성이만 빼 놓고 아래 윗마을 온 동네 남정네들은 모두 한 번씩 걸치고, 허다 못해 애까지 지나 갔는데. 너 같은 골이 아직껏 내버려뒀거나? 그 좋은 걸.

팔봉: 에이 형님두.

칠성: 저 안협집이 그렇게도 좋아?

용팔: 말도말야 천상 백옥경이 거기요, 은중도원경이 바로 거기더라.

삼들: 아니 도대체 안협집이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보게.

용팔: 허허 긴말하면 잔소리 내 그때 안협집하고 그럴 때 한동안 정신이 혼미해져서 집문서를 몰래 훔쳐 나올려고 맘도 먹었었다.

덕용: 그럴 수도 있지

칠성: 그래서 안협집하고 한 번 걸친 사람은 안협네! 안협네! 하는구먼.⁵⁹⁾

여기에서 남성들은 여성의 성기에 대한 성적 환상을 은중도원경과 정신의 혼미로 특성화한다. 그것은 이전의 남성들의 성적 욕망이 여성을 육체적 정복 차원에서 이제는 쾌락을 즐기는 차원으로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들의 성적 경험은 아무런 죄의식도 동반하지 않은 채 공개적이고도 세부적으로 담론화된다. 영화는 남성들이 여성과 성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단순히 육체적인 경험과 성 관계의 위치 등과 같은 행위의 차원에서 말하는

59) 이두용 감독, 뽕, S#. 18.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열, 정신적인 충격, 성적 환타지 등으로 보다 세밀하게 특성화 된다. 여성의 성기에 성적 환상을 갖는 남성권력은 여성의 육체를 건드릴 각오를 하며, 그것을 세세히 관찰하고, 그 육체에 정신적 충격을 부여하면서 정념에 불타 여성의 육체를 탐닉하는 대상으로 고착된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남성권력이 관능화와 남성의 성적 쾌락의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의 육체를 대상화하고 통제하는 성격을 지닌다.

한편 여성의 성적 욕망은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이고 물질지향적이다. 즉 안협네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관능성과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섹스신화는 더더욱 욕욕이 강한 기질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못 남성들이 그녀를 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녀 또한 못 남성들에게 성적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식도 강렬하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안협을 끌고 나무 밑으로 가는 이장)

안협집: 왜 이래유, 왜 이래유, 이장어른. 아휴, 왜 이런대유.

이장: 왜 이러긴, 다. 암시롱. 자, 이 은반지(은반지를 보는 안협)

이장: 귀한거여.

안협집: 아휴, 몰라유. 비도 오는데

이장: 비오면 대수여. 자, 이거 받아. 이거 받고 내가 하라는대로만 해. 요렇게 요렇게.(은반지를 안협에게 주는 이장)⁶⁰⁾

이렇듯 여성의 성적 욕망은 남성들과의 성 관계에서 단순히 성기적 결합만으로 끝날 뿐 성적 대상과의 어떠한 삶의 인간애적 교감도 없다. 성기 결합은 곧 쌀과 은가락지, 그리고 돈이다. 여기서 성기라는 상품은 독특한 특성이 있다. 안협네나 복녀가 육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성기는 반드시 그녀들이 소유하는 것이다. 다른 일반상품과는 달리 일시적인 빌려줌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녀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단지 돈을 벌겠다는 목적만으로 성기를 상품

60) 이두용 감독, 뽕, S#. 18.

으로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기라는 상품은 반드시 추상적인 강렬한 성적 쾌락의 온상지이어야 하고, 돈을 지불하는 대신에 못 남성들에게 강렬한 쾌락을 서비스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인간의 성적 욕망의 본질적 측면을 성기와 성기적 결합만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때의 쾌락은 삶의 총체성 속에서 연속될 가능성을 서로에게 강하게 제시되기보다는 일회적이고 충동적인 성기적 섹스가 특성화되어 나타난다.

4) 성기적 쾌락의 페티시즘화와 대상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80년대 한국 에로티시즘 영화에 있어서 성은 더욱 강도 높게 사물화된다.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성이 공개화된다고 해서 얼굴 붉히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로티시즘을 표방하고 나선 영화의 경우, 인간의 성은 억압되어선 안된다는 대명제에는 동의하지만, 성기만의 접촉과 여성의 육욕을 동일시하고, 여성이나 남성 모두를 신체적으로 분할시켜버렸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의 성적 욕망에 관한 담론은 여성의 성기와 쾌락과의 관계와, 쾌락을 즐기는 방법, 기관, 쾌락의 강도와 느낌을 증가시키는 방식들이 세세히 충동화되었다. 그와 맞물려 영화에서 여성의 성기 중심의 쾌락과 더불어 여성 육체의 각 부위의 쾌락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를 중심으로 한 쾌락과 각 육체의 페티시즘화는 여성을 남성의 쾌락을 위해 대상화시켰고, 더욱이 여성의 성기적 쾌락의 향유는 곧 죄의식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은 먼저 여성의 성에 대한 대상화(objectification)와 물신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레몬체크(L. LeMoncheck)는 대상화를 「여성이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육체 혹은 동물로 간주되어 도덕적으로 동등한 인간으로서 여성의 지위가 저하되거나 실추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⁶¹⁾ 여성이 대상화되고 성적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여성의 성적 특성을 강조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페티쉬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영화는 성애의 장면에서 키스나 애무가 없는 성 관계만을 표현한다. 성 관계는 보통 남성 성기를 여성의 질 속에 삽입하는 행위로, 한마디로 삽입성교(sexual intercourse)을 말한다.⁶²⁾ 실제로 키스나 애무가 아닌 삽입성교에서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남근이며 그것은 키스나 애무에서의 상호교감의 차원이 아닌 여성의 역할을 수동적인 것으로 제한하며 평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³⁾ 그 과정에서 남성의 성적 욕망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은 무성적(asexual)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영화에서 성기적 쾌락의 대상화는 여성의 성기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결국 여성의 성기적 쾌락은 남성을 위한 쾌락의 대상에 불과하다. 영화에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방법은 관음적 쾌락화와 여성 육체의 페티시즘⁶⁴⁾화로 나타난다. 관음적 쾌락화는 훑쳐보기를 통한 성적 충동과 즐거움이다. 메츠(C. Metz)에 의하면, 영화는 화면과 관객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관음주의의 심리적 특성을 유발시키는데 대개 이것들은 제도화되어 있으며 성 관계 장면 에 대한 관객의 관음주의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배우와 동일

61) LeMoncheck, L., *Dehumanizing Women: Treating Person as Sex Objects*, Totowa: Rowman & Allanheld Pub, 1985, pp.5-41.

62) 영화 「뽕」은 단 한 번의 애무도 나오지 않고, 남녀간의 성행위의 횟수는 8회 이상이며, 그 모든 성행위가 삽입성교에 의한 것으로 표현된다.

63) 김현경, 「한국영화에 나타난 성애표현의 연구: 1981년~1989년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p.18.

64) Mulvey,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in *Screens* 16, no.3(Autumn, 1975) p.64. 로라 멀비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개념에서 '페티시'를 끌어와 영화분석의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 중의 하나이다. 영화에서의 남성의 시선은 남성을 위협하는 여성의 결핍을 발견하고,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통해 거세공포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로라 멀비는 '페티시적인 절시증(fetishistic scopophilia)'을 문제삼는다. 즉 그것은 여성을 신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듦으로써 그것을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전환시킨다. 멀비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의 신체에 미학적으로 완벽한 것을 부과함으로써 거세 위협을 극복한다.

화되어 있는 관객이 대상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은 목격당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형태의 관음적인 쾌락은 배가된다는 것이다.⁶⁵⁾ 관음적 쾌락을 배가 시키는 방법으로 성행위는 폐쇄적이고 음침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뽕」에서는 한밤중에 물방앗간에서 안협덕과 칠성이가 정사를 가진 뒤 이어지는 것은 아침에 삼돌이가 뽕잎을 한 짐해서 지고 마을로 들어서는 열린 공간에서의 장면이다. 「감자」에서도 복녀가 염전 관리소장과 헛간에서 정사를 가진 뒤 곧이어 펼쳐지는 대낮의 염전밭은 관객을 하여금 남녀간의 비밀스런 행위를 엿보도록 유도한 후에 갑자기 분위기를 환기시켜 관객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강제한다.

그리고 육체의 패티시즘화는 앤 캐플란⁶⁶⁾이 주장한 것처럼, 영화 촬영시 카메라가 보는 시선은 관음적인 특징을 가지며 영화를 촬영하는 자가 대체로 남성이란 점에서 남성 권력의 시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남성의 시선으로 인한 내러티브는 여성을 남성의 시선에 대한 사물로 만들기 위해 구조화되어져 있다. 즉 영화들은 클로즈업을 주로 성행위 당시 여성의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다. 특히 이때의 여주인공은 천편일률적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남자 배우들은 한 프레임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얼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실체감이 없는 존재로 표현된다. 실제로 화면의 종류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 미디엄 샷(medium shot)이라고 하더라도 보이는 것은 남자 배우의 등 또는 머리 부분이고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여자 배우들의 얼굴이다. 또한, 클로즈업이 사용되는 용도는 여배우들의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주로 보여지는 것은 여배우들의 다리, 둔부, 성기 부근, 입술과 혀, 허리 등이 있다.⁶⁷⁾

이것은 바로 성기가 단순히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과 애정이 없는

65) Metz, C., *The Imaginary Signifier: Psychoanalysis and the Cinema*,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2, pp.61-63.

66) Kaplan, E. A., *Woman & Film: Both Sides of the Camera*, New York and London: Methuen Pub., 1983, p.34.

67) 김현경, 앞의 논문, p.20.

성적 쾌락의 물신화로 나타난다. 성적 쾌락의 물신화란 인간의 성적 욕망이 상품화되고 분절된 육체의 한 부분에 대한 단순한 삽입만으로 돈과 거래된다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와 쾌락이 성기만으로 분할되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성적 욕망이 에로스를 통한 성적 쾌락의 다형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성기를 통한 성적 쾌락의 배설성을 과도하게 보여준다. 그 결과, 영화는 여성을 남성의 쾌락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서 성적 주체성과 여성의 성적 쾌락을 끝내 상실시키고 말았다.

5. 나가는 말

위에서 분석한 영화들로 국한시켜 본다면, 한국영화의 성적 욕망에 관한 담론은 끊임없이 성적 욕망을 이용하고, 생산하면서 육체에 대한 자극, 쾌락의 증대, 성에 대한 앞의 지식을 증폭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영화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집요하게 이용하고 들추어내면서도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으로 배제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영화가 인간의 성적 욕망을 억압해 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영화는 사회의 다양한 지식-담론들과 관계맺으면서 다양한 성적 욕망을 이용하고 그것을 지배질서 속에 모자이크처럼 재배치했다.

위의 영화들에서 아내의 성적 욕망은 육욕을 유희적 쾌락, 매춘으로 문제삼으면서, 그것은 성기도착적이며 병리적인 것으로 담론화했다. 그것은 죄의 온상지로서 애초부터 처벌의 대상으로 말한다. 결국 아내의 성적 욕망이 결혼제도를 위반할 경우, 죽음과 징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담론이 구성되었다. 즉 영화는 아내의 성적 욕망을 끊임없이 총동화하면서 지배적인 성규범과 결혼제도의 질서를 공고화 하는 차원에서 담론적 권력을 행사해 왔다.

아직까지도 영화분석에서 주로 활용된 관점들은 페미니즘이나 작가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왔고, 그 결과 한국영화가 성적 욕망을 억압해 왔다거나 감독의 상상력과 관념의 산물로 이해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영화가 성적 욕망에 관한 담론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의 지식-권력과 상호작용하면서 창조하고 이용해 온 것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제공할 수 없었다. 비록 본 연구가 영화담론과 다양한 지식-담론들과 관계들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한국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담론들을 분석할 경우, 영화담론 외부의 사회적 지식-담론들과 유기적인 관계에서 미세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정인엽 감독, 『애마부인』, 1982.
이두용 감독, 『뽕』, 1985.
박철수 감독, 『감자』, 1987.
김수남, 『한국영화의 쟁점과 사유』, 문예마당, 1997.
김인자, 「대특집 :오늘의 여성, 무엇이 고민인가—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여원》 1981년 5월호.
김후란, 「여자의 가출은 열병인가 유행인가?」, 《여원》 1980년 4월호.
김현경, 「한국영화에 나타난 성애표현의 연구: 1981년~1989년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논문, 1992.
백상창, 「아내의 가출」, 《여원》 1981년 8월호.
송유식, 「가출의 심리: 자기희생이라는 아리송한 가출동기」, 《여원》 1980년 4월호.
여성동아 편집부, 《여성동아》 1984년 5월호.
_____, 「80년대 기생관광」, 《여성동아》 1984년 6월호.
_____, 「베일에 쌓인 한국의 매춘산업, 그 천의 얼굴과 몸을 발가벗긴다」, 《여성동아》 1988년 2월호.
_____, 「주부매춘」, 《여성동아》 1989년 8월호.
_____, 「아내의 성/ '사랑'에 자신있나요」, 《여원》 1983년 5월호.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82.

- _____, 『한국영화연감』, 1986.
- 유계준, 「성기능 장애 클리닉 내원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한국임상성(性)학회지》, 제2권 제1호, 1990.
- 조혜정, 「영화에서의 에로티시즘의 수용과 한계」, 『제17 예술평론 심포지움』, 1996,
- Cook, P.(ed.), *The Cinema Book*, Pantheon Books, 1985.
- Chancer, L. S., *Sadomasochism in Everyday Life: The Dynamics of Power and Powerlessness*, The Charlotte Sheedy Literary Agency, Inc., 1992, 심영희(역), 『일상의 권력과 새도매저키즘: 지배의 논리와 속죄양 만들기』, 나남, 1994.
- Deleuze, G., Foucault, (Minit, 1986), 권영숙·조영근(역), 『들뢰즈의 푸코』, 새길, 1995.
- Foucault, M., *L'Archéologie du Savoir*, Gallimard, 1969, 이정우(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1992.
- Foucault, M., *Histoire de la Sexualité I-La Volonté de Savoir*, 이규현(역), 『성의 역사』 제1권, 나남, 1990.
- _____, *L'ordre du Discours*, Gallimard, 1971, 김화영(역), 「담화의 질서」, 《세계의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2년 봄여름호.
- _____,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Gordon, C. (trans.), 홍성민(역), 『권력과 지식』, 나남, 1991.
- Gledhill, C., “Klute 1: A Contemporary Film Noir and Feminist Criticism”, in E.A.Kaplan(ed.), *Women in Film Noir*, BFI Publishing, 1980.
- Harvey, S., “Woman's Place: The Absent Family of Film Noir,” in J. Copjec(ed.), *Shades of Noir*, Verso, 1993.
- Kaplan, E. A., *Woman & Film: Both Sides of the Camera*, New York and London: Methuen Pub., 1983.
- LeMoncheck, L., *Dehumanizing Women: Treating Person as Sex Objects*, Totawa: Rowman & Allanheld Pub, 1985.
- Metz, C., *The Imaginary Signifier: Psychoanalysis and the Cinema*, Bloomington: Idiana Univ. Press, 1982.
- Mulvey, L.,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in *Screen*, 16, No.3 (Autumn, 1975)
- Rajchman, J., *Michel Foucault—The Freedom of Philosoph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5, 심세광(역), 『미셀푸코: 철학의 자유』, 인간사랑, 1992.

Slovenko, R., "Adultery and Fornication," Kadish(ed.),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New York: Fress Press, 1983.

Webb, P., *The Erotic Art*, New York: Graphic Society, 1975.